



동물들의 자유는 우리의 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

연대

2025 동물자유연대 연차보고서

2025년 1월,
흑한에 방치되어 구조된 '뿌리'

발행일

2026년 2월 21일

발행처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홈페이지

www.animals.or.kr



목차

- 03 감사의 말
- 04 동물자유연대는
- 06 2025 타임라인
- 10 활동 보고
- 28 재정 보고
- 30 회원 한마디
- 32 보고서 바로가기



함께한 26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대표이사

조희경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붉은 말이 한달음으로 달려와 벌써 봄꽃을 기대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연초에 소망하셨던 일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붉은 말의 상징은 열정, 변화, 도전 등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2026년 한 해에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5년 지난 한 해도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동물에게 잔혹한 현장 대응과 시민 인식 확장, 정책 개선 논의기구, 정책 및 입법 기관에 대한 설득, 기업의 변화 도출 등 많은 영역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힘입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써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을 앞두고 2025년 말 기준으로 농장의 80%가 폐업을 했을 만큼 개식용종식의 열차도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 해 2026년에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도록 마무리 하는 데에도 신경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은 사육곰 종식으로도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식용 종식, 사육곰 종식을 완전히 이루고 돌고래 전시 종식까지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시민운동의 성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기에 종식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수 십년 이상을 이어왔기에 법적인 종식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재정착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기준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했어도 늘 부족함이 남고 다음 해를 기약하게 됩니다. '마지막 강의'의 저자 랜디 포시는 경험이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며 경험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가치있는 것이라 했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들은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앞으로 더 나아가는 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2025년의 한 해를 정리하며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욱 더 깊이 있고 사회적 신뢰를 받는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동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에 동물자유연대가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 올 한 해도 그 길에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물과 더불어 동물과 함께 세상에 공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복이 넘치는 202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MISSION

미션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

VISION

비전
인간이 관리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며,
나아가 인간이 이용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인다.

***생태적 조화:** 인간 또한 생태계의 부분으로서 동물의 지배자가 아닌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윤리적 조화:** 인간은 자아가 있는 지적 생명체로서 이웃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단체

회원 수 최다로, 가장 많은 시민분들께서 믿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동물자유연대는 반려, 농장, 전시, 실현, 길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을 위해 폭넓게 활동합니다.

동물구조, 입양 전문성

최고의 동물구조 전문팀을 운영하며, 위기동물에게 새 삶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투명한 후원금 운용

2013년부터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진행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공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 내역을 매월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보호시설 운영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복지형 보호소 설립 이후, 현재는 개와 고양이를 분리하여 국내 최고의 동물 맞춤형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2025 타임라인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된 발걸음이 어느덧 스물여섯 해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물 복지와 동물권 향상을 위해 쌓아온 26년의 여정 위에서,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06 June

-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철폐요구
- 동네고양이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

07 July

- 반려동물산업법 철폐 촉구
- 캣동지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간담회
- 태화강 국가정원 내 동물 사육과 전시 중단 요청

08 August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동물복지세션 공동주최
- 사육곰 12마리 매입 계약 체결

05 May

- 신종펫숍 근절 서명 진행
- 대구 달성군 소싸움 대회 평화 피켓 시위

04 April

- 신종펫숍 금지법 발의 및 서명 운동 진행
- 제주도 비육마 수출 중단 요구

10 October

-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축제 캠페인 부스 운영
- 고흥시 오토바이 이용 학대 건 구조
- 기업 농장동물 복지 정책 조사

09 September

- 세종시 동물미용학원 실습견 53마리 구조
- 연천 사육곰 농가 사육곰 10마리 구조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지원사업 협약

03 March

- 공주시 페마 목장 생존 마필 16마리 입양 완료
- 경북 산불 재난 구호 활동
- 울산 불법번식장 고양이 80마리 구조

11 November

- 남양주&남원 사육곰 4마리 구조
- 대구 달성군 소싸움대회 예산 미편성 기자회견

02 February

-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개최
- 2024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12 December

- 동물과미래포럼 창립
- 사육곰 종식 대책 수립 요구 활동



01 January

- 안산시 흑한 방치 당나귀 구조
- 공주시 페마목장 처벌 촉구

2025 함께 만든 변화

동물 구호 및 지원

위기동물 구조/학대대응
나눔사업

온센터

온독
온캣

정책 및 사회변화

정책/입법
반려동물
야생/전시동물
농장동물

연구 활동

동물과미래포럼
연구/조사



위기동물 구조 및 학대 대응



동물자유연대는 사고, 재난, 방치, 학대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동물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현장 대응을 수행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출동하여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동물이 다시 안전한 환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동물이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관점에서 문제를 살피며 위기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대 대응

동물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상황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분리 조치를 진행합니다. 위기동물대응팀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동물의 상태와 사육 환경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는 학대 정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사법적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현장 개입에 그치지 않고,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대응을 지향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대응

35 회

동물 구조 및 재난 대응

사고·재난·방치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구조와 안전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위기동물대응팀은 현장에 출동해 동물의 상태와 주변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구조를 이어갑니다. 구조 과정에서는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뒤 보호소로 안전하게 인계하여, 이후 보호와 회복 과정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119 동물 구조 대상

제4회 119동물구조대상은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동물을 구조하며 생명보호에 앞장선 소방대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입니다. 화재, 수난, 붕괴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동물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 활동을 이어온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조명합니다. 이 시상식은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동물 구조 대응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되짚고, 위기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출동
127 건



동물구조
263 마리



수상 소방대원
3 명



수상 소방기관
1 개소

나눔사업



동물자유연대는 위기 속 동물을 외면하지 않는 시민과 단체가 구조·치료·입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치료비 부담과 현장의 운영 어려움을 덜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풀뿌리단체와 시민들의 지역 돌봄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쓰담쓰담 (시민 구조 동물 치료비 지원사업)

시민이 다치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구조했을 때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다수의 시민 구조자와 함께하며 많은 위기동물의 생명을 지켰으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의 손길이 닿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치료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며 생명 구조의 가치를 회원분들과 나누었습니다.



2025년 총 지원건수

121 건



2025년 총 지원금액

105,456,178 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편입 지원사업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따라 민간 보호소들은 2026년 4월까지 시설과 운영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료 마련조차 빠듯해 시설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보호소들의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보호시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지원 및 신고 완료 단체

2 개



2025년 총 지원금액

2 억 원

지자체 보호소 동물 입양 활동단체 지원사업

유기동물은 점점 늘어나지만 입양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보호소 동물의 구조와 입양 활동을 진행하는 풀뿌리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현장에서 밤낮없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더 안정적으로 구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조, 치료, 입양 전 과정에 필요한 각종 재정 지원을 제공했으며, 성과 공유와 교류를 통해 단체 간 연대의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회원분들의 소중한 후원이 보호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지원단체

7 개



2025년 총 구조동물

176 마리



2025년 총 입양동물

84 마리



2025년 총 지원금액

7,000 만 원



캣동지 협의체 지원사업

캣동지는 3인 이상의 시민이 모여 동네고양이 공동돌봄을 실천하는 협의체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성화(TNR), 치료비, 지역 내 갈등 완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동네고양이로 인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자체 의원 간담회 진행, 로드킬 방지 현수막 게시 등 실질적인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골고루 지원해 지역 격차를 좁히고자 노력했습니다.



2025년 총 지원협의체

9 개



2025년 총 지원금액

8,000 만 원

온센터



국내 최초로 설립된 동물복지형 보호소인 온센터는 신체적 안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과 시민 참여, 제도적 협력을 통해 보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지향하며,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보호동물 임시보호 및 입양 성과



입양	개	고양이	소동물
79 마리	76 마리	2 마리	1 마리



온독 ON DOG

'온독'은 구조된 개들이 각자의 상태와 성향에 맞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의료 관리와 행동 관찰,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들이 신체적 회복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를 지향합니다.

남양주시 제1호 민간동물 보호시설 등록

2025년 온독은 제1호 민간동물보호시설로 공식 등록을 완료하며, 법적·행정적 기준을 충족한 최초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동물복지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설 개선 공사 완료

온독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대수선 공사(온독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 공사는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동물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물 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시민 참여 캠페인 운영

- ① 대형견 교감 행사 '집의 시간을 내어줘'
- ② 소심견 교감 행사 '꼬리 숨숨이에게 용기를'
- ③ 입양 홍보 캠페인 '입양 홍보대사'
- ④ 입양 가족 행사 '입양동물의 날'
- ⑤ 결연후원 회원 대상 '결연의 날'



집의 시간을 내어줘

꼬리 숨숨이에게 용기를

결연의 날

온캣 ON CAT

'온캣'은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선진형 보호 시설입니다. 실내 시설은 캣스텝, 캣타워 등 수직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되었으며, 야외 공간에는 캣티오와 고양이 정원을 조성하여 고양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 동물 복지 및 사회화 프로그램 강화

온캣은 매월 개체별 특성과 회복 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화 교육과 교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활동가를 대상으로 격월 돌봄 관련 의료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캣스텝과 캣타워 등 고양이 놀이시설을 확충하여 보호동물들이 생태적 특성에 맞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봉사활동 운영 체계 고도화

온캣은 봉사자 안내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하여 처음 참여하는 봉사자도 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기봉사자 전용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원활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봉사자님들 덕분에 온캣 활동가들은 더 세심하게 동물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 캠페인 운영

- ① 세계 고양이의 날 기념 '온캣의 여름방학'
- ② 입양가족 초청 행사 '온캣에 온가족'
- ③ 입양 희망자 대상 '고양이 소개팅'
- ④ 반려견 동반 센터 개방 행사 '온캣에 놀러오개'
- ⑤ 결연후원 회원 대상 '결연의 날'



온캣에 놀러오개

온캣의 여름방학

온캣에 온가족

정책/입법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법과 정책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법 제안과 정책 개선을 위해 활동하며, 농장·실험·야생·사역 동물 등 비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목표로 단계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 정책과 입법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고 동물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평가 기준 정비

야생동물의 사육환경, 복지수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내동물원, 파충류 박람회 등 야생동물 전시 및 판매 현장을 조사하고 안정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백색목록으로 지정 및 수입되는 야생동물 관리에 있어 동물복지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경주마 복지 증진 정책 활동

경주마로 활용되는 말들의 이력은 경마장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퇴역 이후 소유자, 소재지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퇴역마들이 학대 및 방치 상황에 놓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말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한국의 경주마 관리 주체인 한국마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동물복지 입법 및 대선 대응

제21대 대통령이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를 기대하며, 주요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정책의 공약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3개 동물권 대선대응연대와 함께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동물복지 공약 이행 및 정책 추진을 점검하기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통해 앞으로 꾸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등 동물 관련 법에서 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파양동물 이용 영업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더 많은 동물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동물자유연대는 산란계 사육 환경과 동물복지 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육 형태별 산란계 복지 현황과 동물복지달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정부의 산란계 동물복지 정책을 주제로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추후 산란계 동물복지 정책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달걀 포장재에 사육환경 정보를 명확히 표기할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와 시민 서명(2,543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과 올바르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물영업 규제 법안 발의

동물자유연대는 2025년 신종펫숍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변칙적인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이어갔습니다. 2026년에는 정부로 하여금 보호소를 가장한 신종펫숍을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도믹스 입양 캠페인

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반려견을 만나지만, 그중에서 진도믹스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일상을 영유하는 반려견에게는 늘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를 진도믹스견들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여느 반려견들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진도믹스견에게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네고양이 네트워크 구축

동네고양이가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돌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운영했으며, 동네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도움 요청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야생/전시동물

상업적 동물전시에 반대하고 야생동물 사육 산업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시동물 복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위법 사항 모니터링과 소비 자제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사육곰 종식의 해를 맞아 사육곰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시동물 복지 개선 활동

동물체험전시시설 12곳을 현장 조사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된 8곳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면담을 실행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물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련 내용을 콘텐츠화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사육곰 산업 종식

2026년 법적으로는 사육곰 산업이 종식되지만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는 사육곰들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5년 동료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10마리 사육곰을 구조했으며, 추가로 4마리를 자체 구조하여 구례군에 설립된 곰 보호시설로 이송시켰습니다.



농장동물

산업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인간에 의해 이용당하고 고통받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설령 음식으로 이용되는 동물이라도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고통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 복지 체계 구축 활동

한겨울, 공터에서 방치되어 있던 당나귀를 격리 조치하고, 소유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처벌 및 소유권 박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해당 동물은 동물자유연대가 입양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말 산업 현장 조사를 통해 '말 등록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산란계 케이지프리 캠페인

축산물을 이용하는 40개 기업의 동물복지 정책을 조사하고, 케이지프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가 업계의 반발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추가 유예를 막고 사육면적 확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소싸움 폐지 유도

국가유산청의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막아냈으며,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11개 지자체 중 2026 예산 미배정 지자체를 6개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소싸움 금지 결의안' 및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물과미래포럼

동물복지와 동물권 그리고 인간-동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동물권 연구자들의 교류를 돕습니다.

동물과미래포럼 창립식

창립식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들의 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장대철 교수팀(카이스트 경영대학)이 개발한 '전국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공개하였습니다.

연구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동물과미래포럼은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동물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지원사업을 공모·선정하였습니다. 총 26건의 지원이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회를 거쳐 수의·자연과학 분야 2건, 법·인문·사회과학 분야 3건의 총 5개의 연구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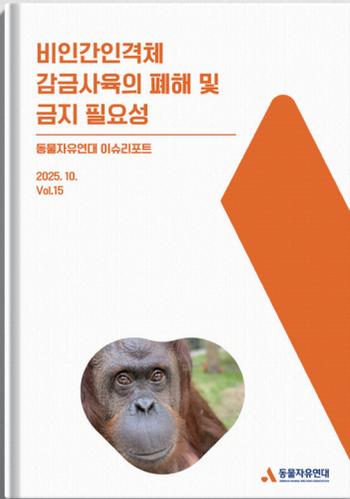


연구/조사

비인간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찰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근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인식 아래 동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연구

세계적으로 돌고래, 코끼리, 유인원 등 인간과 유사한 심리 및 인지 체계를 보유한 동물종의 전시 제한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동물의 경우 여전히 국제 기준 대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이슈리프트를 발간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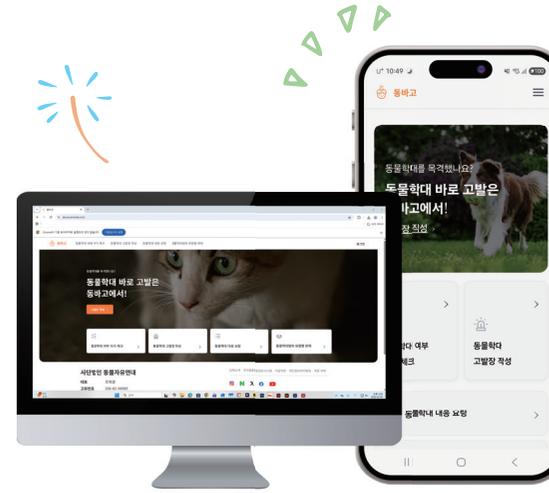


동물생산업제도 개선 활동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생명을 공산품처럼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가 존재하며, 이는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동물 생산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생산업과 동물미용학원업의 결합 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의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동물학대 대응 웹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 및 사건 대응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동물학대 대응 역량에는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시민을 대상으로 고발장 작성 등 동물학대 대응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동바고(동물학대바로고발)' 웹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지수 개발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단체의 반려동물 보호 복지 관련 조례·인력·예산을 기반으로 '동물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의 동물복지 환경 수준을 측정 및 비교했습니다. 향후 농장·전시동물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동물아카데미

동물권 및 동물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 강좌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했습니다.



“

이러한 성과들은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물들 고통이 아닌
존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2025년, 후원금 사용 내역

2025 수입

(단위:원)

구분	금액
공익목적사업수익	13,441,846,156
기부금수익	13,431,946,156
정기후원회비	11,530,009,217
일반후원금	1,616,181,956
물품후원	285,754,983
연구용역수익	9,900,000
공익목적사업외수익	184,358,982
수입합계	13,626,205,138

2025 지출

*동물구호나눔사업

2025년 나눔사업팀을 신설하여 국내 위기 속 동물을 돕는 시민과 단체가 구조, 치료, 입양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료 동물단체들의 활동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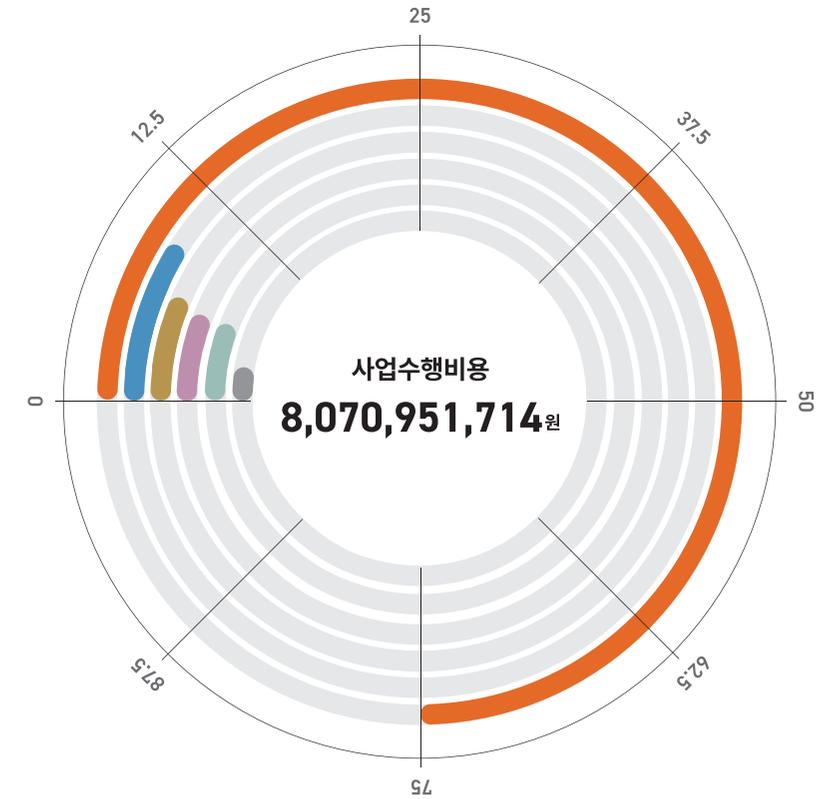
**자산취득

2023년 총회 의결을 거쳐 사옥 부지 매입, 온독·온켓의 리모델링 및 필수 시설, 기계 장치 마련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검토하고 준비해 온 숙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향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사업수행비용	8,070,951,714
동물구호사업	6,025,170,083
동물구호나눔사업*	735,343,307
동물과미래포럼	76,735,630
캠페인사업	384,282,771
동물복지정책사업	338,492,624
부속사업	508,177,124
동물복지연구소	2,750,175
일반관리비용	684,376,981
모금비용	1,924,415,202
사업외비용	3,724,580
자산취득(건물 및 시설외)**	5,348,115,010
지출합계	16,031,583,487

2025년에 동물자유연대 **사업수행비용 75%**를 동물구호활동에 사용했습니다.



동물구호사업

75%

6,025,170,083 원

동물구호나눔사업

9%

735,343,307 원

부속사업

6%

508,177,124 원

캠페인사업

5% (농장동물, 전시동물, 반려동물)

384,282,771 원

동물복지정책사업

4%

338,492,624 원

동물과미래포럼

1%

76,735,630 원

동물복지연구소

2,750,175 원

더 알아보기

QR코드를 통해 2025 동물자유연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과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확인하세요

2025년! 회원님의 시선으로 본 동물자유연대는?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에 오랜 기간 후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원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소식과 의미를 전하기 위해 소통하는 동물자유연대의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동물을 위한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단순 구조만이 아닌 법안이나 정책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동물들의 처우, 학대 등에 대응하는 모습에 늘 응원을 보냅니다. 덕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이슈에 대해서도 알게 되네요. 활발한 활동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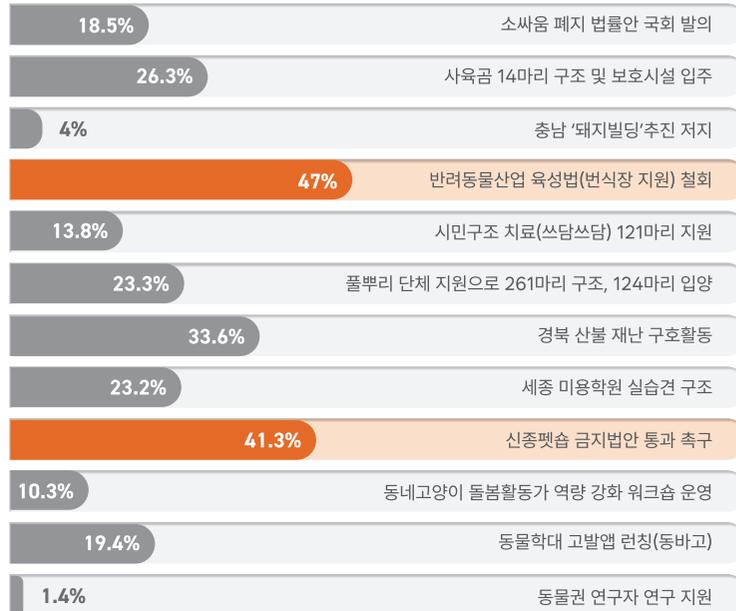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가 있어 지금의 반려견을 만날 수 있었기에 항상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에 대해 기부와 서명 활동밖에 못 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관심을 가지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생명들을 위해 계속 힘써주세요. 동물자유연대의 투명성과 꾸준히 전해지는 결연후원 및 활동 소식 등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큰 원동력입니다. 재능 기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6년 더 나은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기간: 2025.12.31~2026.01.07 / 1,956명 참여)

질문 1

2025년에 진행된 활동 중 회원님께 가장 인상 깊게 남은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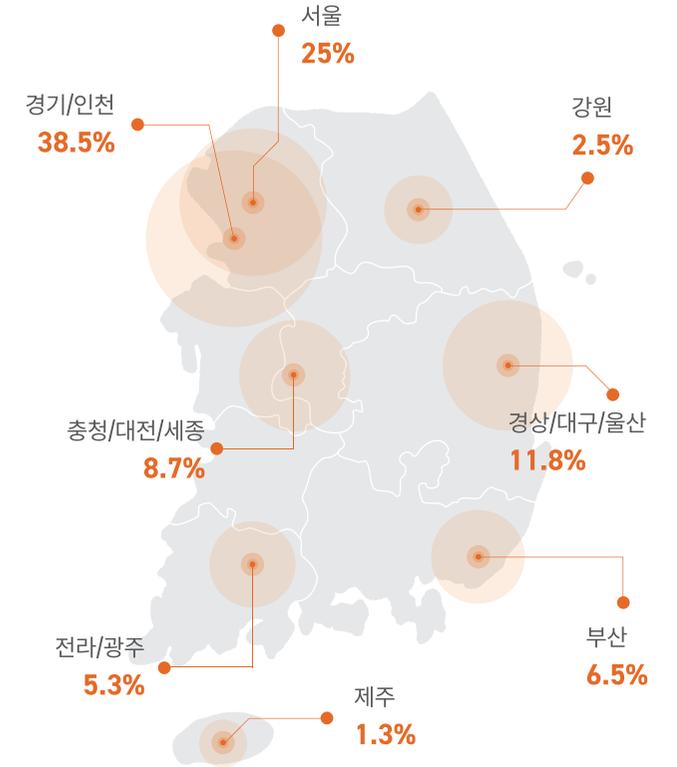


질문 2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을 더 응원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회원님들은 이 곳에서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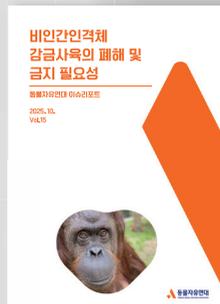


회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역동성**을 동물자유연대의 강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는 활동을 통한 전문적인 현장 대응과 동물 운동의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사회적 역할을 균형 있게 이어온 방향성에 공감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보내주시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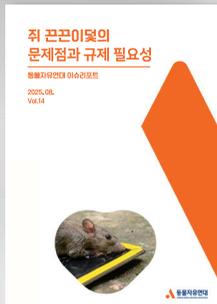
2025년 동물자유연대의 사업과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출판물을 소개합니다.

[자료집]

화재 등 재난 시
반려동물 응급처치 리플렛
(25.04.17)



[보고서]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25.11.03)



[보고서]
취 끈꾼이
뎃의
문제점과
규제
필요성
(25.08.19)



[보고서]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
(25.02.17)



[출판물]
산란계
평사
전환
가이드북
(25.01.23)



대표번호

02-2292-6337

운영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내선번호

- 1번 동물학대 및 구조
- 2번 회원정보 변경 및 후원신청
- 3번 동물입양 상담
- 4번 기타 활동 및 동물정책



정기후원



일시후원